대장경 인경본, 123년만에 대중에 선뵈다

해인사 10월 7일 전통보존행사 '포쇄' 진행

판전 보관 인경본 1270권 대상
전권의 포쇄는 123년만에 처음
개산 1219주년 기념 일환 개최
전통방식 재연, 보존중요 강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10월 7일 장경판전 계단 아래 설치 된 포쇄소 앞에서 '2021 대장경 인경본 포쇄(해바라기)' 행사를 개최했다.

포쇄는 책을 거풍(擧風, 바람을 쐬는 것)하는 작업으로 책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전통방법이다. 해인사는 법보종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대장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쇄 행사를 개최했다.

대장경 인경본 포쇄행사는 먼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귀의하는 고불로 시작됐으며 대중 스님들의 포쇄선언 후 인경본 출납 및 이운으로 이어졌다. 장경판전 수다라장 다락에서 장경판전 계단 앞에 설치 된 포쇄소로 대장경 인경본이 전달됐다. 이운된 인경본은 총 1279권으로 100여명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이운에 동참해 총 30분만에 완료했다.

포쇄현장에 쌓인 인경본은 방장 원각스님과 주지 현응 스님 등 해인사 대중스님들이 일일이 점검했다. 이후 바람과 햇볕을 쐬는 포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포쇄작업 후에는 인경본을 다시 포장해 수다라장 다락에 다시 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10월 7일 장경판전 아래 포쇄소에서 '2021 대장경 인경본 포쇄'를 진행했다.

포쇄에 대해 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은 "포쇄는 팔만대장경 인경책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동시에 1898년 팔만대장경 인경 당시 대장경판 보존 상태도 살펴 볼 수 있는 행사"라며 "아울러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의 마음에 새기는 의식으로 경전을 직접 보면서 마음으로 읽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목판 뿐 아니라 인경을 한 인경본도 보관되어 있다. 그 중요성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인사 포쇄는 〈동문선〉 등에 해인사 외사고에 고려실록이 보관돼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포쇄했다는 기록과 칠월칠석 전통문화행사로 포쇄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마련됐다. 해인사는 2017년에도 포쇄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인경본 전권을 포쇄한 것은 123년만에 처음이다.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장에 보관 중인 대장경 인경본은 1270권으로 1898년 조선시대 상궁 최씨 발원으로 4부가 인경돼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에 각각 1부씩, 나머지 1부가 전국 사찰에 나뉘어 봉안됐다.

포쇄는 과거 사찰 또는 사원, 사고, 민가 등에서 행하던 전통방식의 보존의식으로 장마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옷이나 책 등을 밖으로 꺼내 빛을 쬐고 바람에 말리는 행사다. 부식과 충해를 방지시켜 오랫동안 서적을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다.

한편, 이번 포쇄는 해인사 개산 1219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해인사는 포쇄와 더불어 개산 1219주년을 기념하는 '2021 국화향기 그윽한 해인사 개산대재 법회 및 문화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10월 한달간 해인사에서는 '개산 축하 장엄등 및 국화 전시', '해인사 주석 역대 고승 특별전', '개산 역대 조사 다례재', '보살계 수계대법회'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유튜브 '해인사 TV'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풍경소리 지하철서 학교로 문화포교 확장

해동중 · 금정중 등 종립학교 법음게시판 부착


전국 지하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게시판을 부착하고 법음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가 종립학교로 문서포교 영역을 확대했다.

전국 지하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게시판을 부착하고 법음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회장 목종)가 문서포교 영역을 학교로 확대했다. 풍경소리는 10월 1일 해동중학교와 금정중학교에 문서포교 게시물을 부착하고 도서 〈풍경소리〉를 기증했다.

풍경소리 회장 목종 스님은 해동중학교를 방문해 게시판이 걸려있는 장소를 둘러보며 문서포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목종 스님은 "풍경소리는 법음을 전하는 모임이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 그들의 삶에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종립학교에 온 학생들은 우선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경소리 게시판 내용은 딱딱하지 않고 수준 높은 서각 작품이 함께 실려 거부감이 없다. 앞으로 문서포교 확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것이며 학교 뿐 아니라 불자들의 가정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섭 해동중 교장은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을 위한 큰 마음을 내주시고 게시판과 책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좋은 책과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지혜가 전달되길 바라고 오고가는 학생들의 마음에 불심의 씨앗이 심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포교단체이다. 일반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불교'로 다가가고자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쉬운 언어로 담아 게시물을 제작한다. 게시물은 전국 지하철과 철도역 2500여 곳에 설치됐고 매월 정기적으로 교체해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서장사 ·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협약



울산 서장사와 울산불교환경연대는 10월 2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울산 서장사(주지 불성)와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10월 2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서장사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빈그릇 운동 등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들을 준수하고 녹색사찰로 활동을 이어간다.

협약식에는 서장사 주지 불성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백련사 천도 스님, 임신규 신도회 회장, 고수옥 부회장 외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협약식은 주지 불성 스님과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환경교육 및 협약서 서명, 녹색사찰 현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불성 스님은 "서장사가 녹색사찰로 인연을 맺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다"며 "불편하지만 생명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미래 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협약식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하나에도 세계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며 "녹색사찰로서 앞으로 자연보호와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 노력해주는 불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표충사,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봉행

호국성지 표충사(주지 진각)가 10월 6일 표충사 일원에서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향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울산 월봉사 보화 스님, 청하암 자허 스님, 표충사 박물관부관장 여서 스님, 이원효밀양유림회 회장, 김명환 밀양 향교 전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념하고 그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사를 시작으로 문화축제를 연다. 전시 및 학술대회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큰 공적을 널리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국성지 표충사가 10월 6일 표충사 일원에서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한편, 표충사는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호국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문화축전은 10월 16일 사명대사 다례재 및 전통호국음악 공연,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의 호국성지길 순례행사로 진행된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 세상을 치유하다'란 주제로 특별전도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영불교聯, 장애인시설 도색

통영불교연합회(회장 종묵)가 10월 4일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이모이는 샘'에서 페인트 도색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사단법인 나누우리 봉사단, 태고종 경남교구, 통영 보현사, 통영불교거사림회, 통영해양경찰 봉사단, 통영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주관했으며 통영불교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 김연정 사랑이모이는샘 원장, 원지후 통영대학생 봉사단 회장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통영불교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저희 통영불교연합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위해 앞으로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불교거사림회 지도법사 회장 묵원 스님은 "사랑이모이는샘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내·외 취약계층 후원물품 지원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지원 사업 모금 캠페인
지원대상 국내·외 취약계층
기 간 2021년 11월 30일 (화)까지
기부물품 의류(새 제품, 이월 상품 모두 환영), 의료(용)품, 생활용품, 식품(컵라면, 통조림) 등
★업체 기부 대환영!
후원계좌 농협 053-17-001346 (예금주 : 생명나눔실천본부)
문 의 02-734-8050 / www.lisa.or.kr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